논 문
CODE 30101

증·개축을 통해 본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rural houses on the Jeju Area through extension and renovation

최재권* / Choi, Jae-Kw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rural houses on the Jeju Area through extension and renovatio which is expressed in the modernization course.

For this study, I choose 52 residences in 8 villages as the subjects which are changed by the spontaneous will of the inhabitants who live in Jeju area. As for the research method, after visiting the subject residence directly, and the field study such as the actual estimation research, observation research, and interview research were performed.

The conculation of the study with these purpose are as follows. Fist,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the rural dwelling space in the traditional aspect. As for the arrangement of the house, the recognition of securing the space for the Ma-dang is continuously expressed. Second, The dwelling spatial composition after the modernization was changed into the pattern which make each space individual, however the opened structure which is focused upon the Ma-ru and An-bang is still being continued. Thirdly, The kitchen continuously shows the assistance of the standing household life according to the modernization. Additionally, with the multi-use room was arranged for the daily use as well as to cook in the space or to store the household tools.

키워드 : 농촌주거, 제주지역, 증·개축, 공간의 변화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는 인간에 의해 변형되어 왔으며 또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변화되고 있다.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주거는 구조물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련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는 하나의 제도(institution)라 하였고, 또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조직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1]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는 문화적 여건에 대해 적응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며 그 지역의 자연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알맞은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농업위주의 경제생활에서 벗어나 공업위주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경제체제가 바뀌면서 사회제도, 가치체계, 규범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근대화에 따른 이러한 사회변화는 도시와 함께 농촌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전통적인 마을의 정주환경과 주거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촌주거환경은 근대화에 따른 변화와 전통문화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구화, 근대화의 요소 속에 전통문화의 이중성이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화과정은 근대적인 것이 전통적인 것을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근대적인 것과 함께 전통적인 요소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농촌주거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생활문화요소의 지속성과 변용성을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두도록 노력해야하는 정체성(identity)의 확보와 아울러 문화적 통합성(integration)의 측면으로 농촌주거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전통적으로 지역의 풍토, 역사, 문화, 그리고 생

* 정회원, 제주관광대학 디자인계열 인테리어건축전공 조교수

1)Amos Rapoport., 이규목 역, 주거의 형태와 문화, 열화당, 1995, p.72

활양식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방적 공간구성에 따른 전용적(轉用的) 공간사용, 의례를 대비한 공간구성, 세대분리의 공간구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 주거특성은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주생활과 공간이 대응관계를 갖고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화에 따른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생활문화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통적 요소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지속성과 변용성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장연구를 통하여 한 지역의 주거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연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마을의 주거를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 주거를 직접 방문하여 실측조사, 관찰조사[2], 면담조사[3] 등의 현장연구[4]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사례의 특성상 주거공간의 시차적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단면적 시점에서 공간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평균, 빈도, 백분율로 단순 통계 처리하여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이후부터 거주자 자유의사에 의해 지어진 자조형주거[5]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5년까지의 농촌주거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주거가 현재까지 변화한 것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6]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사례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의 보편적 농촌의 신뢰정도가 높은 8개 마을 52개 주거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농촌주거는 재래형 농촌주거 23호, 개량형 농촌주거 29호이다. 이 사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마을의 이장과 원로의 협조를 받았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농촌마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단독주택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진행상 주생활과 공간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나는 평면을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외관 및 입면의 형태분석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사례의 개요

번호	사례기호	세대주	소재지	건축년도	건축구조
1	재래G45	김강노	애월읍 고내리	1945	목구조
2	재래N48	고병찬	애월읍 납읍리	1948	목구조
3	재래S48	김애지	조천읍 신촌리	1948	목구조
4	재래M49	양광익	한림읍 영월리	1949	목구조
5	재래G50	장한진	애월읍 고내리	1950	목구조
6	재래S50	김상택	조천읍 신촌리	1950	목구조
7	재래SA51	강순심	안덕면 사계리	1951	목구조
8	재래U55	이종상	애월읍유수암리	1955	목구조
9	재래N56	진희익	애월읍 납읍리	1956	목구조
10	재래M60	강행근	한림읍 명월리	1960	목구조
11	재래S60	김경근	조천읍 신촌리	1960	목구조
12	재래O60	조순덕	성산읍 오조리	1960	목구조
13	재래K61	박순원	한림읍 금악리	1961	목구조
14	재래SA62	조남수	안덕면 사계리	1962	목구조
15	재래O62	김경일	성산읍 오조리	1962	목구조
16	재래K62	박승준	한림읍 금악리	1962	목구조
17	재래SA64	김천탁	안덕면 사계리	1964	목구조
18	재래G65	강완순	애월읍 고내리	1965	목구조
19	재래K65	송대규	한림읍 금악리	1965	목구조
20	재래M67	김두호	한림읍 명월리	1967	목구조
21	재래O67	홍명삼	성산읍 오조리	1967	목구조
22	재래O68	김만승	성산읍 오조리	1968	목구조
23	재래K70	박민호	한림읍 금악리	1970	목구조
24	개량O71	홍원란	성산읍 오조리	1971	목구조
25	개량S71	이한열	조천읍 신촌리	1971	블럭조
26	개량G73	김화택	애월읍 고내리	1973	블럭조
27	개량M73	김해영	한림읍 명월리	1973	목구조
28	개량O74	현금란	성산읍 오조리	1974	목구조
29	개량G75	안영일	애월읍 고내리	1975	블럭조
30	개량SA77	이두백	안덕면 사계리	1977	블럭조
31	개량O77	강성선	성산읍 오조리	1977	목구조
32	개량N78	진동준	애월읍 납읍리	1978	블럭조
33	개량M78	고군봉	한림읍 명월리	1978	목구조
34	개량G78	김석효	애월읍 고내리	1978	블럭조
35	개량M78-1	정태수	한림읍 명월리	1978	블럭조
36	개량O80	홍성구	성산읍 오조리	1980	블럭조
37	개량U81	이근창	애월읍 유수암리	1981	블럭조
38	개량O81	부태규	성산읍 오조리	1981	블럭조
39	개량G82	김택휘	애월읍 고내리	1982	블럭조
40	개량M83	오명봉	한림읍 명월리	1983	블럭조
41	개량M83-1	강상종	한림읍 명월리	1983	블럭조
42	개량M83-2	강건일	한림읍 명월리	1983	블럭조
43	개량U83	강희진	애월읍 유수암리	1983	블럭조
44	개량M83-3	김진두	한림읍 명월리	1983	블럭H
45	개량O83	현대인	성산읍 오조리	1980	블럭조
46	개량S83	이명언	조천읍 신촌리	1983	블럭조
47	개량M84	오영삼	한림읍 명월리	1984	블럭조
48	개량N84	양태봉	애월읍 납읍리	1984	블럭조
49	개량N84-1	진희복	애월읍 납읍리	1984	블럭조
50	개량G85	고덕진	애월읍 고내리	1985	블럭조
51	개량N85	김순배	애월읍 납읍리	1985	블럭조
52	개량M85	홍병표	한림읍 명월리	1985	블럭조

2. 증·개축의 방법 및 위치 분석

제주도 주거의 주동배치는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대칭형식과 별동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배치는 대문을 기본으로 살림채와 부속채로 나누어지며, 살림채는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

2)Spradley James P.,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3)Spradley James P., The En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9.

4)Lee Hee-Bong, Space, Form and Subculture: The use of a Field Study Method, Ph. D. Dissertation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5)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논문, 2000, p. 19.

6)농촌주거의 분류는 재래형농촌주거, 개량형농촌주거로 분류하였다. 재래형 농촌주거는 새마을운동이전에 건축되어진 전통민가형으로서 근대화에 따라 전통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화되어온 주거이다. 개량형 농촌주거는 농촌주거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71년부터 1985년까지 건축된 비교적 근대적 개념의 주거형으로 현재까지 변화되어온 주거이다.

로 구성되고, 부속채는 창고, 쇠막[7]으로 구성되어 있다.[8] 전통적인 주동배치는 풍향이 크게 고려되어 안거리를 중심으로 밖거리, 모거리, 부속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현재 농촌주거의 주동배치는 이러한 전통적인 배치보다 근대화 영향으로 증·개축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동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개축의 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 분석한다.

2.1. 증·개축의 방법

증·개축의 방법은 표 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채(원래 있던 건물)에 붙여서 증축하는 것과 별채(원래 없던 건물)로 증축하는 방법, 그리고 용도변경의 경우이다. 첫째, 본 채에 붙여서 증축하는 것은 본 채의 내부 기능이 확대되어 표출되는 경우이고, 별채로 증축은 본 채에 없었던 공간이 분리되어 배치되는 경우이다. 또한 주생활의 변화와 영농방식의 변화로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표 2> 증·개축의 방법

증·개축 방법	원형	변형	특징	사례수	
				재래형	개량형
본 채에 붙여서 증축			· 내부기능이 확대되어 외부로 표출 · 주동에 실이 접합하는 경우 · 주동과 부속채를 연결하는 경우	22 (95.7%)	26 (89.7%)
별채로 증축			· 주거공간면적의제약으로 외부로 분리하는 경우 · 안거리에서 분리된 생활공간 · 농업형태 변화에 의한 영농공간	8 (34.8%)	12 (41.4%)
용도변경			· 영농방식의 변화 · 가족주기의 변화	11 (47.8%)	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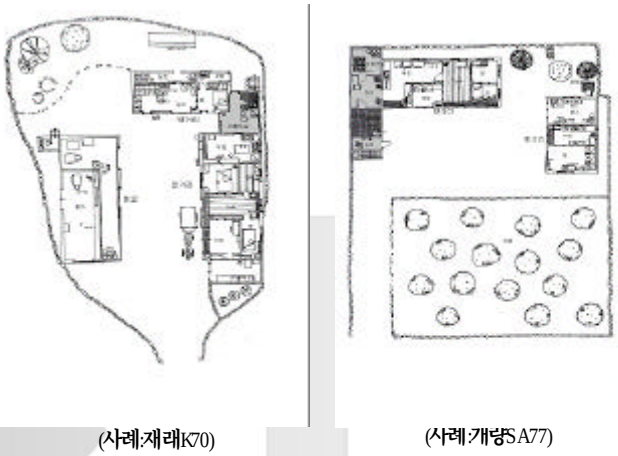
<범례> 증축부위:

(1) 본 채에 붙여서 증축

주거형 별로 살펴보면, 재래형주거는 95.7%(22/23), 개량형주거는 89.7%(26/29)로 나타났다.

본 채에 붙여서 증축하는 경우는 내부공간의 확대와 단위공간의 접합으로 나누어지는데, 내부공간의 확대는 공간의 협소로 기존의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경우이며, 단위공간의 접합은 본 채와 일체화하여 증축하는 방법이다.

재래형주거는 주로 내부공간 확대가 나타났는데, 내부공간의 협소로 주거가 전면과 측면으로 확대되는 경우였다. 개량형주거는 내부공간의 확대보다는 단위공간의 접합에서 뚜렷하게 변화를 보이는데, 부엌과 다용도실이 기존주거 외부에 증축되는 경우였다. 단위공간 접합은 주동과 대지경계선 사이공간을 연결하여 통합하는 방법으로 처마를 연장하여 담과 연결하거나,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공간을 연결하여 그 사이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사이공간은 부엌 및 다용도실을 배치하여 가사 및 위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 근대적 설비의 도입으로 보일러실과 농기계 및 농업용 창고 등을 배치하고 있었다.



(사례:재래K70) (사례:개량SA77)

(2) 별채로 증축

주거형 별로 살펴보면, 재래형주거는 34.8%(8/23), 개량형주거는 41.4%(12/29)로 재래형주거보다 개량형주거에서 약간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별채로 증축은 생활관련 별채 증축과 영농관련 별채 증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관련 별채 증축은 안거리의 협소로 그 기능이 안거리와 연계성을 가지고 증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사보조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외부공간에 다용도공간을 증·개축하는 경우나,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한 울타리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부모세대가 안거리에 거주하고 자식세대가 밖거리에 생활공간을 별채로 증축하여 생활에 필요한 침실과 취사를 위한 부엌을 만들어 세대간 개별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제주도 농촌주거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적 공간사용의 특징을 보여준다.

영농관련 별채 증축은 농업형태의 변화로 영농방식이 기계화됨에 따라 농기계창고를 주거내에 배치하거나 농기구 및 농산물보관을 위한 창고를 배치하는 경우이다.

7)외양간, 농기구보관 및 헛간으로 사용

8)안거리는 안채 또는 본 채, 바깥채는 본 채와 마주 앉은 형, 모거리는 바깥채로서 본 채와 직각으로 놓인 형이다. 이러한 주동은 마당을 중심으로 집의 챗수에 따라 외거리형, 두거리형, 세거리형, 네거리형으로 분류되며 점차 ㅁ자 형태로 주거를 구성해 나간다.

9)김미령,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8, pp. 34 35.

<그림 3> 다용도실의 별채증축
(사례:개량G82)

<그림 4> 농기계창고의 별채증축
(사례:재래K65)

(3) 용도변경

증·개축에 의한 방법에서는 사용상 기능의 소멸과 새로운 기능이 부가되는 용도변경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형 별로 살펴보면, 재래형주거 47.8%(11/23), 개량형주거 31%(9/29)로 나타났다. 재래형주거는 영농방식의 변화로 쇠막 등이 농업용 창고나 생활재 보관창고로 변화되었다. 또한 밖거리의 생활공간이 가족수의 축소로 농기구창고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는 용도변경이 나타났다. 개량형주거는 자녀성장과 결혼 등의 가족주기 변화로 방수가 부족할 경우에 창고가 침실과 부엌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림 5> 쇠막이 창고로 변경
(사례:재래N48)

<그림 6> 생활공간이 창고로 변경
(사례:재래M85)

<표 3> 증·개축의 위치

주거형 \ 증·개축위치	사 례					
재래형주거						
개량형주거						

<범례> 안거리: 밖거리: 부속사: 증축부위: 마당:

2.2. 증·개축의 위치

분석대상 농촌주거의 대지와 증·개축 부분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증·개축 위치는 주동과 마당을 중심으로 전면, 측면, 후면으로 분류된다. 재래형주거는 전면 26.1%(6/23), 측면 65.2%(15/23) , 후면 34.8%(8/23)로 나타났으며 개량형주거는 전면 24.1%(7/29), 측면 44.8%(13/29), 후면 69%(20/29)로 나타났다.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 모두 증·개축 위치는 전면보다 측면과 후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관련공간의 증·개축 위치는 살림채의 측면이나 후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위치는 대지경계선과의 사이공간으로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생활공간이 배치되거나, 침실이나 부엌이 확장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창고와 같은 농작업공간의 증·개축 위치는 기존 주동의 후면이나 측면의 안뒤[10], 우영[11]과 같은 기능이 축소된 공간에 배치하였으며, 주로 마당의 반대 부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지와 증·개축부분의 위치는 짜투리 외부공간을 이용하여 마당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4> 증·개축의 위치

증·개축 / 주거형	전면	측면	후면	계
재래형	6(26.1%)	15(65.2%)	8(34.8%)	23
개량형	7(24.1%)	13(44.8%)	20(69%)	29
합계	13(25%)	28(53.9%)	28(53.9%)	52

3. 증·개축에 의한 공간별 변화분석

증·개축에 의한 주거공간 변화는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과의 부적응을 일으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주거공간 변화는 공간의 조절과 적응 메카니즘으로 거주자의 생활문화의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안거리를 중심으로 증·개축에 의한 공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증·개축에 의한 주거공간 변화방법을 살펴보면, 1)원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의 용도로 변화된 용도변경, 2)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에 면적이 증가한 확장, 3)타실과 합하여 넓어진 통합, 4)증·개축부분이 새로운 용도를 갖는 부가, 5)시설물을 제거, 폐쇄, 변형하는 시설물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3.1. 안방(큰구들)

재래형주거는 용도변경 65%(15/23), 확장 65%(15/23)로 나타났고, 개량형주거는 통합 48%(14/29)로 나타났다. 재래형주거는 난방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안방과 작은방을 교체하는 용도변경이 주로 나타났다. 즉 취사난방 겸용시기에 안방이 부엌과 인접한 작은방으로 이동한 것이다. 확장은 안방이 여전히 가족의 공적 공간으로 접객, 식사, 단란 등 주생활의 중심공간으로써 기능이 유지되고, 근대화에 따른 가구 및 가전제품등 생활재 증가에 따라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개량형주거의 통합은 전통적인 굴묵이 개량형주거에도 유지되었으나 난방방식의 변화로 굴묵을 안방과 통합하고 있었다.

<표 5> 증·개축에 의한 안방의 변화

증·개축 / 주거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15(65%)	15(65%)	5(21.7%)		3(13%)	23
개량형	4(13.8%)	3(10.3%)	14(48%)			29
합계	19(36.5%)	18(34.6%)	19(36.5%)		3(5.8%)	52

3.2. 작은방(족은구들)[12]

작은방1에서 재래형주거는 용도변경 65%(15/23), 확장73.9(17/23)%로 나타났으나, 개량형주거는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래형주거는 안방과 작은방을 교체하는 용도변경과 공간 협소로 기존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표 6> 증·개축에 의한 작은방1의 변화

증·개축 / 주거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15(65%)	17(73.9%)	3(13%)		2(8.7%)	23
개량형	4(13.8%)	3(10.3%)	2(6.9%)		1(3.5%)	29
합계	19(36.5%)	20(38.5%)	5(9.6%)		3(5.8%)	52

작은방2에서 재래형주거는 용도변경 73.8%(17/23), 통합 21.7%(5/23)로 높게 나타났으나, 개량형주거는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용도변경은 농산물 수장공간이던 안방후면의 고팡[13]이 생활의 근대화로 인하여 침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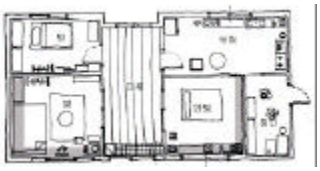
타실과 결합하여 방을 넓히는 통합은 외부공간으로 방의 확장이 곤란하거나, 자녀의 도시 전출로 가족수가 감소되어 방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나타났다. 작은방2는 전면의 안방과 통합하여 넓힘으로서 안방의 공적생활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와 방사이 벽을 철거하고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경조사 시를 대비한 방의 융통적 사용을 볼 수 있었다.

10)안거리 뒤에 있는 정적인 공간, 후원
11)울타리 안에 있는 밭, 텃밭, 채소 따위를 갈아먹는 공지

12)분류의 편의상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 맞은편 방을 작은방1로 하고, 안방후면에 연접한 방을 작은방2로 하였다.
13)곡류(보리, 콩, 조등)유채등을 담는 항아리를 넣어두는 방

<표 7> 증·개축에 의한 작은방2의 변화

주거형 \ 증·개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17(73.8%)		5(21.7%)		2(8.7%)	23
개량형	1(3.5%)		3(10.4%)			29
합계	18(34.6%)		8(15.4%)		2(3.9%)	52



<그림 7> 안방과 작은방의 확장
(사례:재래G50)

<그림 8> 안방과 작은방의 통합
(사례:개량G85)

3.3. 마루(상방)

재래형주거는 확장 82.6%(19/23), 통합 91.3%(21/23), 시설물변경 56.5 %(13/23)로 나타났고, 개량형주거는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재래형주거에서 마루는 전통적으로 주거의 중심공간으로 전·후면이 개방된 반 외부공간이었으나 근대화에 따른 건축재료의 발달로 마루후면이 확장되고, 외부공간이었던 전면부분이 마루로 통합되어 내부화되었다. 또한 마루는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시설물의 변경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두드러진 시설물 변경은 출입문의 제거와 바닥재의 변경이었다. 즉 주거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침실의 미서기문은 제거되고, 바닥은 목마루가 온수보일러를 설치한 온돌로 변경이 되어 소파가 배치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소파 사용의 비율은 낮아 주거의 외형적 근대화에 비해 생활의 입식화는 늦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출입문제거와 바닥재 변경은 마루를 방 기능의 연장으로 사용하는 전용성(轉用性)을 갖는 것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의 중심을 마루와 안방에 두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표 8> 증·개축에 의한 마루의 변화

주거형 \ 증·개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19(82.6%)	21(91.3%)	1(4.4%)	13(56.5%)	23
개량형		3(10.3%)	4(13.8%)		2(6.9%)	29
합계		22(42.3%)	25(48.1%)	1(1.9%)	15(28.9%)	52

<그림 9> 목마루의 온돌로 변경
(사례:재래O62)

<그림 10> 작은방 출입문의 제거
(사례:재래G85)

3.4. 식당(챗방)[14]

재래형주거는 통합 43.5%(10/23), 시설물변경 65.2%(15/23)로 나타났고, 개량형주거는 용도변경 34.5%(10/29), 통합 17.2%(5/29), 시설물변경 48.3%(14/29)로 나타났다. 재래형주거는 전통적으로 부엌과 연계되어 가사작업 및 식사공간이던 챗방이 부엌공간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챗방은 마루의 연장 기능을 가짐으로서 목마루가 온돌로 변경되는 시설물변경이 일반화되었다.

개량형주거에서 식당은 부엌과 통합되거나, 증·개축에 의해 부엌이 외부로 부가되어 기존 부엌이었던 공간이 챗방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챗방 공간은 식사공간으로 사용되기 것보다는 가사용품보관이나 대소사시를 대비한 비일상 가사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 9> 증·개축에 의한 식당의 변화

주거형 \ 증·개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3(13%)	1(4.4%)	10(43.5%)		15(65.2%)	23
개량형	10(34.5%)		5(17.2%)		14(48.3)	29
합계	13(25%)	1(1.9%)	15(28.9%)		29(55.8%)	52

3.5. 부엌(정지)

재래형주거는 확장 52.2%(12/23), 통합 34.8%(8/23), 시설물변경 78.3%(18/23)로 나타났고, 개량형주거는 통합 20.7% (6/29), 부가 34.5%(10/29), 시설물변경 93.1%(27/29)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주도의 정지는 바닥레벨이 낮은 형태로 육지부에서 볼 수 없는 별도의 솥걸이 취사와 굴묵 난방으로 취사난방이 분리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주거가 근대화되면서 취사난방이 겸용이 되어 부뚜막이 접속되는 직접 난방방식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온수보일러와 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면서 다시 취사난방분리가 이루어져 부엌은 작업대의 도입과 함께 입식화가 급속히 나타내었으며, 수납 및 가전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이 확장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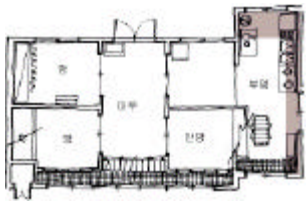
재래형주거의 부엌은 설비의 발달로 협소한 부엌공간을 확장하거나, 챗방과 통합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물 변경은 기존 재래부엌의 바닥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하여 바닥을 실내화하고 있었다.

개량형주거의 부엌은 기존주거에 새로운 부엌이 접속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근대화에 따른 설비의 변화로 부엌과 다용도실이 기존주거에 부가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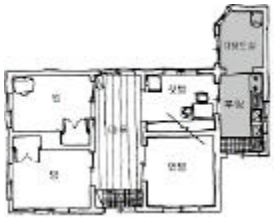
14)정지와 상방 사이에 구성된 제주도 민가에서 만 마련되는 특이한 공간으로서 마루가 설치된 전형적인 식사공간이다. 이것은 주부의 가사 노동을 절감함과 동시에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생활공간인 상방으로 부터 공간분화 한 것이다.

<표 10> 증·개축에 의한 부엌의 변화

증·개축 / 주거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2(8.7%)	12(52.2%)	8(34.8%)	4(17.4%)	18(78.3%)	23
개량형		3(10.4%)	6(20.7%)	10(34.5%)	27(93.1%)	29
합계	2(3.9%)	15(28.9%)	14(26.9%)	14(26.9%)	45(86.5%)	52



<그림 11> 면적이 증가된 부엌
(사례:재래SA64)



<그림 12> 부엌과 다용도실의 부가
(사례:개량O83)

3.6. 다용도실(물부엌)

제주도 농촌주거의 증·개축에 따른 변화특징 중 하나는 다용도실 기능의 물부엌[15] 배치를 들 수 있다. 주거형 별 다용도실의 배치에서 재래형주거는 부가 52.2%(12/23), 개량형주거는 부가 69%(20/29)로 나타났다. 재래형주거에서 다용도실은 기존주거가 확장되는 형태를 나타났으며, 개량형주거는 외부확장보다는 부엌과 다용도공간이 결합되어 기존주거에 부가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용도실은 과거 가사노동이 외부의 마당이나 내부의 정지와 챗방 등에 걸쳐서 행해지던 것이 설비가 근대화됨에 따라 내부화 된 것이다. 특히 부엌의 입식작업대 도입은 기존 좌식의 조리문화에 부적합함으로 좌식의 다용도실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용도실의 기능은 재래형주거나 개량형주거에서 가사보조 기능뿐만 아니라 세면, 목욕 등 위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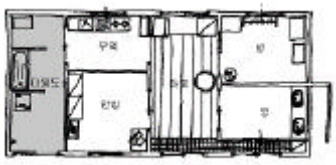
특히 제주도 농촌주거에서 다용도실의 특징은 의례행사시 가사보조 행위와 가사용품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상의 사용보다 큰 규모의 실을 확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조사를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생활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증·개축에 의한 다용도실의 변화

증·개축 / 주거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12(52.2%)		23
개량형				20(69%)		29
합계				32(61.5%)		52

15)다용도실과 유사하나 제주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물부엌의 용어는 부엌과 같으나 바닥이 타일등으로 되어 있어 바닥에 물을 마음대로 뿌릴수 있다고 하여 물부엌이라 부른다. 이 용어의 사용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림 13> 재래형주거의 다용도공간
(사례:재래N48)



<그림 14> 부엌의 측면에 부가된
다용도실(사례:재래G45)

3.7. 난간(낭간)

재래형주거는 통합 100%(23/23)로 나타났고, 개량형주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난간은 주거내부로 접근되는 반 외부공간이었으나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현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내부화되고 있었다.

<표 12> 증·개축에 의한 난간의 변화

증·개축 / 주거형	용도변경	확장	통합	부가	시설물변경	계
재래형			23(100%)			23
개량형			2(6.9%)			29
합계			25(40.1%)			52

4. 분석의 종합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증·개축 방법 및 위치는 근대화에 따른 주생활 및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원형에서 다른 형태로 변용되었으며, 그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증·개축의 방법은 첫째, 생활양식의 변화로 본채에 붙여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재래형주거는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기존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내부공간 확대가 주로 나타났으며, 개량형주거는 부엌과 다용도실이 기존 안거리에 부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별채증축은 안거리가 협소함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안거리와 연계성을 가지고 증축되는 것으로 가사보조공간, 생활공간이 별채로 분리되는 경우와 농기계나 농산물창고를 배치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셋째, 용도변경에서 재래형주거는 영농방식의 변화로 쇠막이나 밖거리가 창고로 변화되었고, 개량형주거는 주로 가족주기에 의한 변화로 창고를 증·개축하여 침실과 부엌등 생활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개축의 위치는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 모두에서 주동과 마당을 중심으로 전면보다 측면과 후면에 집중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창고와 같은 농작업공간의 증·개축 위치는 안뒤나 우영에 배치하여 마당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안거리를 중심으로 증·개축에 의한 주요 공간별 변화를 분

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방의 증·개축은 재래형주거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주거를 외부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증축은 근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둘째, 작은방의 증·개축은 재래형주거에서 안방의 경우와 같이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외부 확장이 나타났으며, 고팡은 용도 변경되어 자녀방 등 침실기능의 작은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셋째, 마루의 증·개축은 재래형주거에서 근대화에 따른 창호의 발달로 마루가 확장되고, 반 외부공간이었던 마루가 내부화되었으며, 출입문 제거와 바닥재 변경등이 나타났다. 이것은 근대화에 따라 생활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루를 방 기능의 연장으로 사용하는 전용성(轉用性)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래형주거에서 식당은 챗방이 부엌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으며, 개량형주거는 부엌이 외부로 부가되어 기존 부엌이었던 공간이 식당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식당은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가사용품보관이나 비 일상 가사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섯째, 부엌은 전통적 정지에서 근대화되면서 부뚜막 형태의 직접 난방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이후 취사난방의 분리가 이루어져 입식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재래형주거는 설비의 발달로 협소한 부엌을 확장하고 있으나, 개량형주거는 기존주거에 새로이 부엌이 접속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섯째, 다용도실은 과거 외부의 마당이나 내부의 정지와 챗방 등에 걸쳐서 행해지던 가사작업이 설비의 발달로 내부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재래형주거는 기존 부엌에 연계되어 외부로 확장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개량형주거는 확장보다는 부엌과 함께 외부에 부가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다용도실은 주로 비 일상 의례시 가사보조 행위와 가사용품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섯째, 난간의 변화는 재래형주거에서 만 나타나는데, 건축재료의 발달로 기존에 반 외부공간이었던 난간은 전면에 유리창호를 설치하여 현관으로 변용되었다.

5. 결론

증·개축에 의한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방식의 변화와 주생활양식의 변화로 안거리와 부속채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증·개축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기존공간이 확장되거나 새로이 공간이 부가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통적인 쇠막이 창고로 이용되거나, 고팡이 침실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가족주기에 변화에 따라 창고가 생활공간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별채로 증축되어 세대간 분리생활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었다. 증·개축위치는 주동과 마당의 측면이나 후면에서 이루어지고, 기능이 축소된 안뒤나 우영을 이용하여 배치됨으로서 마당공간이 최대한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근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외부중심의 주생활이 내부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주거의 내부화가 이루어지고, 주생활 변화에 의한 가구 및 생활용품의 증가로 방, 마루, 부엌의 확장이 나타났다. 그러나 안방과 마루는 출입문 제거, 바닥재 변경 등을 통하여 개방적 공간구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근대화에 따른 주생활양식과 설비의 변화는 가사작업 공간인 부엌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취사난방 방식의 변화는 부엌의 입식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주생활 변화에 의한 가사용품의 증대는 공간 부족을 초래하여 챗방을 부엌공간으로 통합하거나, 외부확장 및 부가되는 형태로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넷째, 증·개축에 따른 제주도 농촌주거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비 일상 가사작업을 위한 다용도공간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이 다용도실은 일상보다는 주로 의례를 대비한 가사보조 및 가사용품의 수납기능의 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어 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생활문화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2. 아모스 라포포트, 이규목 역, 주거 형태와 문화, 열화당, 1995.
3. 최재필,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변화,주거론, 대한건축학회, 1997.
4. Spradley James P.,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5. Spradley James P., The En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9.
6. 김미령,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8,
7.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2.
8. 임창복, 한국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9.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논문, 2000.
10. Lee, Hee-Bong, Space, Form and Subculture : The use of a Field Study Method, Ph. D. Dissertation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11. 제주도, 제주의 민속Ⅳ, 제주도, 1995.

<접수 : 2002. 10. 31>